매일매일 성령 택배로만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2:9~16)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성령 택배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택배로만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분파가 생긴 현상을 계기로 삼아 이유를 깊이 찾아가는 중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같은 내용을 새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택배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물건을 보낼 때 주로 이용한 것은 소포였습니다. 명절 등에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낼 때도 소포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외삼촌이 울릉도로 전근 가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울릉도 오징어를 소포로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포가 택배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 시장이나 가게에서 구해야 하는 일상용품까지도 택배로 주문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십자가 가족들께서 맛있는 음식

을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시금치를 참 좋아하는데 바닷바람 맞고 자란 시금치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맛이 나는 시금치는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금치는 동네 가게에서 샀지만 이제는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택배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한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택배가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 됩니다. 성령 택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택배의 원조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삶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단 하나도 배달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구입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부터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택배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배달되는 것으로만 표정을 지으셨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정과 몸짓은 하늘에서 준비된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배달되었습니다. 성령 택배가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을 보면 “…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전 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오직 성령 택배로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선교나 목회나 전도 등의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택배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택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집사람과 함께 종종 시장에 갔습니다. 기사 노릇도 하고 시장을 돌아보면 생동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시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든 마트든 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주문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택배와 배달문화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침투해있습니다. 성령 택배가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모두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눈앞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있음과 문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있음만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세상에서 좋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형통이나 명품의 좋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좋음만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있음도 느끼지 않겠고 좋음도 느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이외에 있다고 느낄 것도 없고 하나님 이외에 좋다고 바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만을 좋아서 열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유일한 있음과 좋음으로 믿을 수 있고,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으로 믿어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신비한 선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신비한 선물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귀로도 들을 수 없으며 생각이 미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소망할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비한 것들은 4차원 세계의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준비한 신비한 것들과 이 땅에 있는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신비한 것들을 성령님이 땅에 있는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배달해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의 모든 날을 위해서 신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감과 생각이 미칠 수 없는 4차원 세계에서 준비된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들이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택배기사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택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합니다. 마음과 의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다면 성령님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비한 것들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입니다. 한편 세상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의식되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의식하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것들로 의식됩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의식하고 좋다고 여겨서 열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좋다고

여기는 대상을 실제로 얻기 위하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모든 시도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을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만을 유일하게 믿고 붙잡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성령님의 택배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와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과 의식이 십자가를 도외시하면 이 세상이 쇄도해 들어오는 대로 있음과 좋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육체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해도 그것은 올바른 일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지혜와 표적은 우리가 구하거나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지혜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헬라인이 찾은 지혜나 유대인이 구하던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가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신비한 선물들을 성령님의 택배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에 넣어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세상에 필요한 답,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능력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기능입니다. 자동차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갈 곳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마치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의 기능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기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로 움직이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상황에서의 해답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면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헬라인의 특징입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았을 때 하는 일입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필요한 답과 지혜와 힘과 능력은 전부 하늘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돼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배달해주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함이 미흡하여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의 있음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인정하고 믿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대상들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좋음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특별한 사명과 연관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배달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하여 4차원 세계로 가야 합니다. 3차원 세계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믿음으로 3차원을 떠나야 합니다. 4차원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여기기에 믿음입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듯이 행동하고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에만 우리의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무도 생각도 예측도 못한 일들을 준비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하신 것들을 성령님께 배달받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면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을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세상의 영에 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한 “세상의 영”에 대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의식이 있음을 느끼고 마음으로 좋음을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들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소망하는 상태입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마음과 의식이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상태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다.”라는 이론상의 믿음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죽어야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과 비로소 만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철저하고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삶은 완전히 거저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비한 것들은 4차원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3차원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과 의식은 예수님을 따라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4차원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들을 택배로 배달해주시고 움직여가게 하십니

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위해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으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과제나 문제나 일들은 모두 4차원 하늘에서 준비된 신비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택배로 배달해주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점심에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오지 않으면 발만 동동 구르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택배로 배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배달되는 것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배달이 원활하게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 시시각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것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실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갖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휴지조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 것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가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며 이끌어가심이 보이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을 가져서 항상 기뻐하고,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활동을 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준비된 신비한 선물들을 계속해서 택배로 배달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적인 택배기사이신 성령님께서 배달해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이 오직 성령님의 택배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